

자료제공 : 2024. 1. 24.(수)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

교통정책과장	이진구	2133-2210
교통수요관리팀장	김종민	2133-2224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기후동행카드 첫날에만 6만2천장 팔려...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

- 서울시 '기후동행카드' 1.23.(화) 판매 개시...1.27.(토) 서비스 본격 출범
- 판매개시 첫날에만 6만2천장 판매(모바일 27,000장, 실물 35,000장)
- '모바일카드'는 안드로이드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계좌이체로 충전 후 이용
- '실물카드'는 '티머니카드&페이 홈페이지'에 등록해야 혜택 누릴 수 있어

- 서울시는 1월 23일(화)부터 '기후동행카드' 판매를 시작했다. 판매 첫날에만 총 6만2천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.
 - 23일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모바일카드는 2만 7천장, 실물 3만 5천장이 판매되었다. 실물카드 판매량은 서울교통공사 판매량 및 편의점 판매량을 합산한 수치다.
- '기후동행카드'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'모바일카드'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. 별도의 카드 구매비용 없이 무료로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(앱)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, 계좌연동으로 편리하게 충전도 가능하다.

- 다만, ‘모바일카드’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만 구현되어, 아이폰 사용자는 ‘실물카드’를 이용해야 한다. ‘실물카드’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,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는 카드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.
- 일부 판매처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어 물량 추가배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, 방문 전 해당 판매처에 구매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좋다.
- ‘실물카드’ 구매를 완료했다면, 역사 내 충전단말기를 찾아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. 충전 가능한 역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,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, 9호선, 우이신설선, 신림선이다.



< 기후동행카드 충전단말기 >



< 기후동행카드 충전화면 >

- 한편, ‘실물카드’는 구매 후 ‘티머니카드&페이 홈페이지’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. 등록된 카드만 ‘따릉이 이용’ 및 ‘환불’이 가능하며, 추후 개선될 서비스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. 또한 카드를 등록한 경우, 실시간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티머니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.
- 티머니 카드&페이 홈페이지(pay.tmoney.co.kr) → 기후동행카드 이용안내 → 실물 기후동행카드 ‘카드등록 바로가기’



□ ‘모바일카드’와 ‘실물카드’ 모두 충전 시, 충전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용개시일을 지정하고,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.

○ 예를 들어, 2월 1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다면, 2월 1일부터 5일 중 사용시작일을 지정하여, 해당날짜로부터 30일간 이용이 가능하다.

□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1월 27일(토) 첫 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.